

# 사회학

14주차 (2018.12.6)

의료 전문직의 발달과 의사, 간호사.

전체 강의 요약: 다시, 사회학적 상상력으로

## 오늘의 강의

- 의료와 사회 2 - 의료 전문직
  - 전문직의 개념, 특성
  - 의사와 간호사
- 전체 강의 요약: ( )과 사회학 학습의 의의
- 강의 평가 및 기말 시험 관련 논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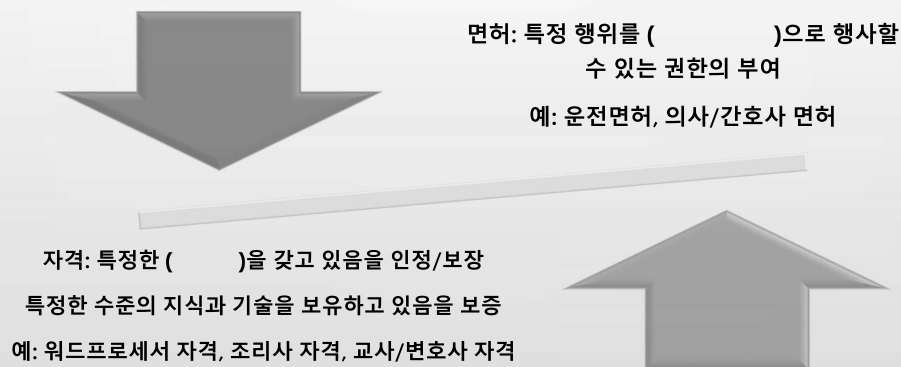
## 지난 주 강의: 의료와 사회 1

- 보건의료의 사회적 특성: 건강은 개인적(생물학적) 문제? 사회적 문제?
-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변수: 젠더, 사회계층적 지위
- ( ) 현상: 개념, 사례, 배경, 의의
- 치유 공간의 사회적 의미:
  - 병원의 역사
  - 사회조직으로서의 병원의 특징
  - 병원 내에서의 환자의 경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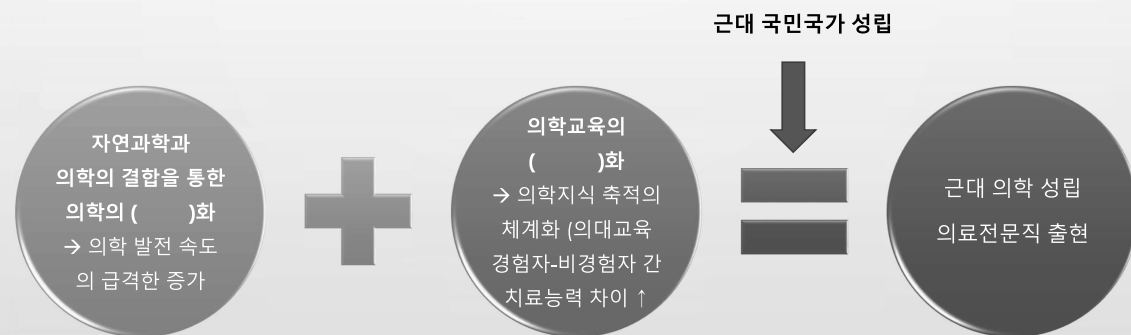
## 전문직이란?

- 전문직(profession)의 정의: 고도의 **전문적 교육**을 거쳐 일정한 ( ) 또는 ( )를 획득함으로써 ( )으로 **지식과 기술을 사용할** 수 있는 직업.
- 전문직의 속성: 영역의 전문성, 업무수행의 자율성, 의뢰인 및 하위 직업에 대한 권위, 사회에 대한 이타주의. 즉, **전문성, 자율성, 독점적 권위, 자체 윤리**의 필요성.
  - 전통적으로는 의사, 법률가, 성직자, 교수 등을 지칭하지만, 전문직의 속성을 모두 갖춘 좁은 의미의 전문직종은 의사가 가장 대표적.
- 면허(license)로 불리는 독점적 권한의 부여와 확보는 ( )의 영향력이 ( )에게 신속하며 고르게 적용될 수 있는 ( ) 국민 국가에서 비로소 가능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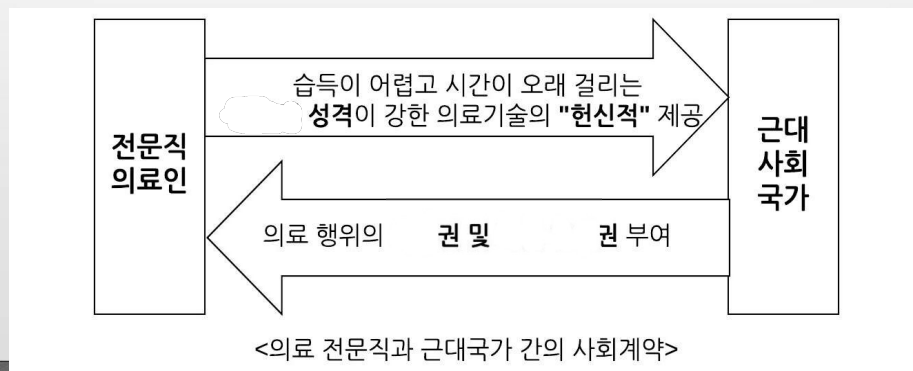
## 면허 vs 자격



## 근대 의료전문직 형성의 배경



## 의료전문직과 근대 국가



## 의료전문직 1 근대의 의사가 독점적인 의료적 권력을 갖게 된 이유?

### 기능론적 관점

- 의학적 지식이 근대사회의 ( )에 필수적이었기 때문
- 중세에는 전염병이 사회의 해체에 기여했던 반면, 근대 사회에서는 의학이 전염병에 대한 치료능력 발휘
- 근대의 복잡한 ( ) 사회 형성에 기여
- 의학의 중요성 증대
- 의사들의 ( ) 상승

### 갈등론적 관점

- 의학지식 자체의 기여도보다는 고도로 발달한 배타적 의학지식이 의료시장을 ( )하게 만들게 됨
- 독점적 의료 ( ) 형성

의료 전문화의 결과, 사회 내에서 배타적 의료권 ( ), 의료계 내에서 기타 의료 관련 직종들 ( )하는 결과를 갖게 됨

## “간호”(Nursing)의 어원



## 나이팅게일(1820-1910)과 크림전쟁

- 치료 과정에서의 ‘( )’과 ‘( )’의 중요성 강조 → 크림전쟁 당시 전쟁 부상자의 사망률을 40퍼센트대에서 ( ) 퍼센트로 낮춤
- 간호, 위생의 임상적 중요성 인정 계기.
- 향후 간호학교 설립(1860) 및 간호학 확립에 기여



## 근-현대 간호 교육의 발달 1 – 병원에서의 공적인 환자 ‘돌봄’ 노동의 등장 배경

### 근대 이전

- ( )들의 업무 → 병원의 세속화로 업무 공백 발생

### 근대 산업혁명 이후

- 가정에서 여성이 해오던 환자에 대한 ( ) 노동이 전쟁터, 병원 등 ( )으로 확대되면서 간호 전문직이 필요성 증가

## 간호와 젠더(Gender)

- 19세기~20세기 초까지 진료는 남성, 간호(돌봄)는 여성의 주된 영역으로 구분되었음.
- ( )에서의 남-녀 역할이 ( ) 및 치료 과정에서의 의사-간호사의 역할로 연결.  
예 - 의사= 아버지, 간호사= 어머니, 환자= 자녀
- 20세기 중반을 거치며 성평등에 대한 인식 변화, 간호 전문직의 발달과 함께 의사-간호사 간 전통적 젠더 역할이 점차 변화.
- 언어적인 면에선 여전히 기존의 전통이 남아있음.  
예- 영어: nurse라는 단어에는 ( )라는 뜻도 포함.  
독일어: 최근까지 간호사는 Krankenschwester (patient-sister)라고 불림. 현재는 Krankenpfleger(in) (patient care-giver)으로 공식호칭되지만 여전히 Krankenschwester가 널리 쓰임.

## 간호의 딜레마 – 1 간호사의 역할: 이상과 현실

- 간호사의 ( ) 증대와 '( )' 역할/병상에서의 간호라는 이미지 간의 괴리 현상
- 기존의 간호사의 역할: "Mother Surrogate"(어머니의 대리자)(Schulman, 1958:ibid.274) – 특징: 여성적, 애정, 친밀, 환자와의 동일화, 환자에 대한 보호적 간호. 일종의 '( )하는 천사의 이미지'
- 간호직이 전문성을 떨수록 환자의 병상에서 멀어지는 현상. 간호사의 전문화가 진행될수록 간호사의 행정/관리직으로의 진급은 늘어나는 반면, 간호 역할 본연의 업무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딜레마.
- 돌봄 노동/간호 자체에 대한 인정도가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에서, 전문인력으로서의 간호사가 병원 제도의 위계체계 내에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본연의 영역에서 ( ) 딜레마 발생.

## 의사-간호사 간 갈등-긴장 2

- 갈등 해결의 방식
- 의사-간호사 간 업무 과정에서 **비공식적 경로**를 활용할 때 갈등 예방 가능.
- 예: "의사-간호사 사이의 게임" – 간호사가 의사에게 던지시 충고하는 방법\* (Stein, 1971; ibid. ): 간호사가 자신의 제안을 마치 의사의 제안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. (예: 환자에게 진정제를 놓을 필요가 있다고 간호사가 판단할 때, 예전의 유사한 상황에서 의사가 진정제를 놓음으로써 환자에게 도움이 되었음을 환기시켜 의사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경우)
- 이러한 "게임"의 성공은 의사-간호사 간 ( ) 관계를 만들어냄 (의사는 ( )과 칭찬을 획득,간호사는 자신의 일의 원활한 수행을 관철, '훌륭하고 좋은 간호사'라는 평판, ( ) 상승) (단, 동등한 경쟁은 아님).

Leonard Stein (1971) Male and Female: The Doctor-Nurse Game. In Conformity and Conflict. J.P. Spradley and D.W. McCurdy, eds. Pp. 185-193. Boston: Little Brown.

## 의사-간호사 간 갈등-긴장 1

- 의사-간호사 간 갈등의 배경: 치료 과정에서 의사는 "최후의 독재자" (환자 관리의 최종 책임자)
- 의사는 간호사와 기타 의료기사들을 비전문가로 간주하는 경향 多, 그들은 환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'( )'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.
- 반면, 간호사는 의사보다 환자와 ( )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의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환자의 요구를 인지하는 경우가 多.
- 환자에 대한 권한, 정보의 "다층적 ( )" → 일방적 주종관계가 아닌 긴장, ( )의 여지를 만들어냄

##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의 발달과 딜레마

- 1960년대 이후 간호직의 전문화는 미국 내 ( )과 무관하지 않음
- 전통적인 여성성의 연장선상에서 정의된 간호사의 전통적 역할 이상을 원하게 됨.
- 간호직 전문화 가속화(자격요건, 교육수준 등)
- 기존의 의사-간호사 간의 관계에서 드러나던 남녀간 성역할 관계는 의사 내부, 간호사 내부로 이동
- 반면 "( )" 업무(( ) 노동)에 대한 전반적으로 낮은 사회적 인정으로 병원 조직 내에서의 지위 면에서는 의사와 비교하여 한계 존재.
- 간호사의 이직률, 간호대 학생들의 중도 자퇴자 비율 ↑

##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의 발달: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

- 병원 내부 및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의 ( ) 확대 – 임상 중심 근무 → ( ), ( )을 위한 지역사회에서 간호로 역할, 영역 확대
- ( ) 간호사 제도를 통한 간호사의 임상 내에서의 역할 증대 (한국: 2005~)
- 보건/마취/가정/전신/응급/산업/노인/호스피스/감염관리/종양/중환자/아동/임상
- 해당실무 3년 경력 후 대학원 전문간호사과정 이수 후 자격 시험 합격 시 취득

## 사회학적 상상력과 사회학 학습의 의의 2

-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자유롭고 매인 것 없는 존재라고 믿고, 실제로 그러하기를 바램.
- 그러나 사회학은 인간이 ( )라는 조건에 ( )된 존재임을 전제하며,
-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( )의 흔적을 찾아내
- 마치 “부처님 손바닥의 손오공”처럼 그 안에서 살아감을 보여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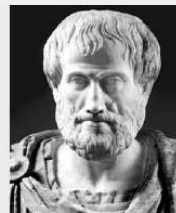


<http://m.blog.daum.net/sso702/18297308>, 2018.6.13 접속

## 사회학적 상상력과 사회학 학습의 의의 1\*

- “인간은 사회적 동물”?
  -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아를 형성하고 생각을 만들어 감
  -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‘나 자신’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학적 상상력의 발휘 필요
-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( )을 이해하는 과정

“인간은 본래  
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 
공동체 안에서만  
완전해질 수 있다”



Aristotle (384-322 BC)

\* 출처: “사회학 학습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냉정한 여로의 출발점” (권재원, 2016, “살모있는 인문수업 사회학” 405-506)

<http://news.mk.co.kr/newsRead.php?sc=50500001&year=2011&no=509286>, 2018.6.13 접속

## 사회학적 상상력과 사회학 학습의 의의 3

- 그러나 인간은 사회의 마리오네트 인형같은 존재는 아님
- 우리는 삶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사회를 ( )하고, ( )하고, ( )시킬 수 있는 존재임.
- 그 사회를 얼마나 잘 해석하고 이용하고 이해했느냐에 따라 자신과 주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



우리가 사회에 조건 지워진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은  
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개인으로 스스로를 선언하는 것보다 “훨씬” 자유로움

## 사회학적 상상력과 사회학 학습의 의의 4

-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사회의 압력을 인지해야
- 반대로 사회의 힘을 ( )할 수 있고,
-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( )을 만들어 갈 수 있음.
- 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행위와 생각의 진정한 ( )이 될 수 있음.
- 만약 스스로를 자유로운 개인으로 선언할 경우
- 오히려 온갖 사회의 장벽에 부딪히게 됨
-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
- 그 장벽에 무모하게 도전한 후
- ( )이 무엇인지 따지기도 전에 그러한 사회적 장벽에 대한 ( )부터 키울 것

## \* 삶은 B와 D 사이의 C? (장 폴 사르트르)

“Life is C between B and D”

Choice between ( ) and ( )

삶은 “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”의 과정

이러한 “선택”의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

“나 자신의 ( )”- 혹은 “타인과의 ( )” 속에 존재하는 “사회적 속성”을 이해함으로써

나 자신의 **외로운 ( )** 과정에서

**보다 나은 선택, ( )**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

사회학 학습의 목표

## 사회학적 상상력과 사회학 학습의 의의 5

- 우리가 사회학을 공부하는 이유는
- 사회적 장벽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
- “( )”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임.
- 사회학 학습은
-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( )를 조금이나마 알려주고,
- 이를 통해 ( )을 이해하는 “냉철”한 여로를 열어주는 방법임

## 요약

